


|   |            |  |             |
|---|------------|--|-------------|
|  | <b>논 평</b> |  | <b>충남도당</b> |
| 2017년 11월 16일(목)  |            | 대변인 : 김 연(010-3355-4074)<br>담 당 : 우승윤 정책실장 |             |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신부더샵 3층 / 041-569-1500, 010-3406-5528                           |            |  |             |

## 포항 지진피해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어제(11월15일, 수)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부상자가 57명, 이재민이 1,500여 명을 넘어서고, 수확능력시험이 1주일 연기되는 등 해당 지역민은 물론 온 국민이 두려움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자 및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빠른 복구와 쾌유를 위해 가능한 모든 힘을 보태겠다.

우리 충남지역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주신 자원봉사자의 도움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에 힘입어 큰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자연재해 앞에는 지역도 정파도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포항 지진피해를 극복하는 일 또한, 온 국민이 같은 마음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부도 11개 부처 장관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진 대응책 및 향후 계획을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정부의 이번 지진피해 후속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당과 함께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